

## # 초짜 수의사

2013년 봄, 스물일곱 청년 이환희는 케이지 안에 있는 포메라니안 품종의 노령견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케이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를 향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었다. 평소처럼 품에 안고 쓰다듬어 달라고 재촉했다.

이환희는 수의대를 졸업하고 막 자격증을 딴 '초짜 수의사'였다.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출근한 지는 2주쯤 됐다. 3년간 공중방역 수의사로 병역 대체복무를 할 예정이었다. "출근 첫날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고 시설도 열악했어요. 층층이 쌓인 케이지 안에는 40마리 정도의 유기견이 있었는데 대부분 불안한 모습이었죠."

한두 마리의 동물이 매일 보호소에 들어왔다. 그는 신고 접수부터 유기동물 관리 전반을 맡았다. 포메라니안은 보호소에 와서 정이 든 강아지였다. 노령견이었지만 비교적 건강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소 팀장이 그를 불렀다. 공간이 부족하니 동물들을 안락사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명단에는 포메라니안도 포함돼 있었다. 그때만 해도 무슨 상황인지 와닿지 않았다. 그런데 케이지 앞에 서자 실감이 났다. 떨리는 손으로 케이지를 열고 포메라니안을 꺼내 품에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그에게 전달됐다. 개의 체온은 사람보다 1도 정도 높다.

처치실 냉동고에는 비닐에 쌓인 유기동물 사체가 쌓여 있었다. 한 번씩 트럭이 와서 무게를 달아 비용을 받고 처리해 주는 식이었다. 처치실이 가까워지자 포메라니안의 몸이 뻗뻗해졌다. 사체 냄새를 맡은 것이다. 무언가를 직감한 작은 몸은 더욱 경직됐다. 꼬리가 말리고 오줌도 짙게 싸다. 수술대 위의 포메라니안이 숨을 거두는데 걸린 시간은 10초 남짓이었다.

퇴근 후 침대에 몸을 누였다. 처치실에 있던 직원들의 텅텅한 표정이 떠올랐다. 눈물이 쏟아졌다. 베개가 다 젖어서 뒤집어 베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유기동물은 매일 들어온다. 15일이 지나 주인을 못 찾은 강아지는 다음에 들어올 동물에게 케이지를 내어주기 위해 안락사된다. 사람이 만든 이상한 시스템 안에서 동물의 삶과 죽음이 기계적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 # 비밀 작업을 시작하다

이튿날 이환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호소에 출근



Cover Story '개발자가 된 수의사' 이환희 포인핸드 대표 이야기

이환희 포인핸드 대표는 '사지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11년째 만들어오고 있다.

김용재 더버터 기자

했다. 다음날도 그다음 날도, 겉으로는 잘 적응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비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포메라니안은 충분히 더 살 수 있었고 삶의 의지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쉽게 안락사를 결정하는 게 충격이었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동물들이라고 구하고 싶었어요."

보호소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를 면하려면 누군

가에게 '입양'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유기동물 정보가 담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홍보가 안 된 탓에 홈페이지 접속자가 없었고, 입양 문의도 거의 없었다. 동물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구조와 시스템 자체가 더 문제였다.

그는 유기동물에 대해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정부 시스템에 있는 유기동물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만들면 입양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다. 대학생 때부터 코딩(coding)을 했던 경험이 있어 자신 있었

다.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그런 앱을 누가 쓰냐'는 반응이었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개발을 시작했다.

한 달 반 만에 초기 버전이 탄생했다. 보호소 유기동물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포인핸드(Paw in Hand)'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반려인 커뮤니티에 앱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안락사되는 유기동물을 안타까워하던 사람들, 특히 유기동물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꼭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업데이트했다.

"우려와 달리 1년 만에 사용자 1만 명을 넘겼어요. 오히려 너무 빨리 늘어 문제였죠. 조립해서 만든 서버용 컴퓨터가 늘어난 사용자를 감당 못하고 뻘뻘했거든요.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컴퓨터와 씨름했어요. 배우고 연구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거의 8년간 모든 걸 혼자서 개발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포인핸드 앱 사용자 수는 72만 명. 누적 다운로드 수는 560만 회에 달한다. 국내 유기동물 입양의 90%가 포인핸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10만 마리 넘는 유기동물이 포인핸드에서 가족을 찾았다. 바퀴 말하면 10만 마리가 안락사의 위기에 벗어난 셈이다.

## # 영화 한 편에서 시작된 일

어쩌면 이 모든 일이 한 편의 영화에서 시작됐지도 모르겠다. 수의대 2학년 때 그는 엉뚱하게도 코딩에 빠졌다. 마크 저커버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보고 페이스북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스토리에 매료됐다. 중고 사이트에서 C언어 교재를 구매해 독학으로 공부했다. 재미있었다. 1년 휴학을 하는 동안에도 내내 프로그래밍만 봤다.

복학 후 '앱 창작터'라는 수업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강했더니 모두 공대생이었다. 수의학과 학생을 외계인 보듯 했다. 오류 없이 잘 짜인 코드로 교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한 번 더 주목을 받았다. 운전 중에 음성으로 문자를 보내는 앱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과제 최우수상을 받았다.

"어릴 때 저는 유독 동물을 좋아했어요. 그 외에는 평범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생각한 적도 있었죠. 대학교 때 코딩을 하면서 처음으로 '몰입'이라는 걸 경험했고, 그게 수의사라는 제 직업과 만나 특별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코딩을 몰랐다면 포인핸드도 없었겠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평범한 수의사로 살았을 거예요."

김시원 더버터 기자

» 5면 '포인핸드'로 계속

## “왜 기부를 미뤄야 하죠?” 2040 고액기부자들이 온다

### 필란트로피 가이드

국내 NGO들이 '고액기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체별로 고액모금팀을 재정비하고 기부자를 위한 다양한 고액기부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고액'의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한 번에 기부할 경우 고액기부로 부른다.

최근에는 20대에서 40대의 젊은 고액기부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두위 기아대책 나눔참여 본부장은 "기아대책 고액후원자 348명 중에 79명(22.7%)이 2040세대"라며 "10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은 5%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2040세대의 고액기부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들의 기부가 지속되게 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굿네이버스·기아대책·서울사랑의열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단체명 가나다순) 등 5개 기관이 추천한 기부자 7



명에 대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2040 고액기부가 갖는 특징과 시사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① 한두 개 단체와 친밀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싶어 한다.

2040 고액기부자들은 여러 단체에 돈을 나누지 않는다. 한두 개 단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하며, 그 안에서 깊고 친밀하게 교류하길 원

한다. 기부 시작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수십 년간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처음부터 한 단체에 '올인'하는 고액기부자는 드물다. FGI 결과, 대체로 3~4개 이상의 단체에 기부하다가 마음에 드는 1~2곳으로 줄이는 식이었다. 단체에 대해 잘 알고 기부를 시작하기보다는 일단 기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형태였다. 어떤 계기로 완전히 단체의 '팬'이 돼 다른 곳을 정리하고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가 기부하는 단체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가 많아요.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직원들이 단체의 미션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 메시지가 일치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기부자가 힘들게 번 돈이니 그만큼 소중하게 잘 쓰겠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고맙기도 했고요. 말 한마디로 단체에 대한 충성도가 쑥 올라갔죠."

김시원 더버터 기자

» 7면 '필란트로피'로 계속

### Inside

디지털 기술로 마음건강을 돌봅니다	C2
초록우산 '온라인 세이프티' 프로젝트	C3
잠비아 물 문제를 5년 안에 해결한다	C4
기후문제 해결 위해 전문가들이 모이다	C5
OECD, 한국의 사회혁신에 주목하다	C6
시각장애인도 즐기는 청각여행	C7

### 더버터 스페셜:

임성택 두루 이사장 C8



###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취재팀 : 김시원 편집장, 문일요 취재팀장

최지은·박선하 기자

공익사업팀 : 이영은 매니저, 박찬주 인턴

문의 및 제보 : hello@thebutter.org

02-3789-7861

# 디지털 기술로 '마음건강'을 돌본다

## 이장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인터뷰

서울 마포대교 위를 걷다 보면 흰색 공중전화 박스를 발견할 수 있다. 수화기만 들면 365일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사와 연결되는 핫라인 'SOS 생명의전화'다. 지난 2011년 설치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상담 수는 9838건에 이른다. 투신 직전의 자살 위기자를 구조한 건수는 2203건이다.

생명의전화 운영기관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최근 전통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넘어 '마음건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사업 방식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상은 성인에서 청소년으로 넓히는 식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이장우 이사장은 "자살 방지의 최전선에 있는 생명의전화를 10년 넘게 지속해 왔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사각지대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상담자의 자연령화가 대표적인데 아날로그 사업으로는 채우지 못한 '연령의 사각지대'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연령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면 그간 어른들의 이야기로만 여겨졌어요.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2030세대 청년들까지 마음의 짐이 있어요. 우울감이랄까, 비행복감을 느끼는 인구가 전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살 시도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을 챙겨야 할 아이들이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죠."

- 원인이 뭘까요.

"유튜브만 봐도 정보가 쏟아집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나와 비교되는 대상이 너무 많죠. 옛날이면 10년에 걸쳐 얻을 정보를 하루에 다 받아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콘텐츠에 워낙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예전이면 그냥 지나갈 문제들이 각성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사회가 달라졌는데 정신적인 대비는 전혀 안 되는 거죠."

- 방법이 있나요.

"대응은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선 좋은 감정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무척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울감이 일상화됐어요. 누군가 먼 산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저 사람 우울한가 봐'라고 할 정도죠. 그래서 나쁜 감정은 팔고, 좋은 감정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를테면 '감정거래소' 같은 거죠."

재단은 지난해 11월 청소년 마음건강 캠페인으로 디지털 플랫폼 '감정가게'를 오픈했다. 간단한 게임으로 좋은 감정을 공유하고, 나쁜 감정은 마음껏 표출해 팔아버릴 수 있다. 오픈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160만 명이 다녀갔다. 청소년 대상 24시간 상담 애플리케이션 '다들어줄게'에서 이뤄진 상담은 34만 건이 넘는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대학생 멘토가 청소년을 상담하는 '힐링 토크'도 20만 명이 이용했다.

- 상담을 요청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다들어줄게'를 만든 게 2018년이예요. 당시에 '청소년 상담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우려가 컸는데, 출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이용자가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은 청소년 상담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만난 이장우 이사장은 "사회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마음건강'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더버터 기자

- 어떤 고민이 많던가요.

"아무래도 대인관계 문제가 전체의 3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특히 고민이 많아요. 그다음으로 학업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순이에요."

- 대면이나 전화 상담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을 활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들은 대면이나 전화 상담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더 편하게 소통합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 익숙하고 오히려 대면 상담을 불편

해하죠.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간이면서,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어요. 기관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는 장점도 있었어요."

- 정부 부처와도 협력한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다들어줄게'는 교육부와, 전 국민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 '마들랜'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고 있어요. 민간과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한 대표 사례입니다. 민

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지원으로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일은 자살을 막는 선제적 조치입니다."

- 오늘도 생명의전화가 울릴까요.

"매년 400건 내외 상담이 이뤄집니다. 하루에 한 번뿐이니까 오늘도 누군가 수화기를 들지 않을까요.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혹은 '몇 명 살렸냐'면서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문일요 더버터 기자

## 편의점은 경사로 설치 의무 없다? 대법 3년 만에 공개변론

소규모 점포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배상 책임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3일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정부, 양측 대리인의 변론, 참고인 진술, 참고인 간의 질의응답, 재판부와 대리인 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모든 과정은 공개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국가가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인지 여부다. 또 시행령 개정을 미룬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국가배상을 인정해야 하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

휠체어장애인이 편의점이나 매장에

들어설 때 필요한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다만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 300㎡(약 90평) 이상의 시설로 규정돼 있다. 이 시행령 조항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의 약 97%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면제됐다.

원고들은 "국가가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유명 무실해졌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는 공개변론 종결 이후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일정은 대법원이 추후 공지한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 호모약티부스

# MZ 포스코 직원이 이끄는 로봇만들기 봉사단



홍성주 포스코 포항제철소 열연부 기술개발혁신센터 (로봇만들기 재능봉사단장)

청소년 시절, 로봇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포스텍 기계공학과에 진학해 '포스코 무인항공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이후 베트남 호찌민 공대에서 3D 모델링을 주제로 강연하고, 포스텍 후배들을 대상으로 메카트로닉스 수업을 진행하면서 메이커 교육(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로봇·기계 등을 만드는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근무지인 경북 포항의 아이들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메이커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 해답은 사내 봉사단에서 있었다. 포스코 재능봉사단은 취미나 특기 또는 일터에서 키운 역량을 활용해 관심 분

야에서 봉사 모임을 꾸릴 수 있는 제도로, 현재 113개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2022년 하반기 로봇·메이커교육·봉사활동을 결합한 '로봇만들기 재능봉사단'을 창단하게 됐다.

로봇만들기 재능봉사단은 로봇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학생들이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단원은 54명이다. 창단 당시 모든 단원이 로봇 교육을 할 정도의 전문가가 아니었다. 로봇과 메이커 활동에 흥미를 느낀 동료들이 모여들었고, 매주 스터디를 통해 지식을 공유한다. MZ세대 단원과 선배 단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교육 자료를 준비한다.

봉사활동의 성과는 학생들의 반응에서 나타난다.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 구글 AI 스피커, 훈민정음 게임기, 라인 트래서, 자동 쓰레기통, 기억력 테스트 게임기 등이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졌다. 아이들이 직접 코딩하며 작품을 설계하고, 완성된 결과물은 집에 가져갈 수 있

도록 선물한다. 때로는 학원도 가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거나 마칠 시간이 됐는데도 계속하고 싶다고 조르기도 한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중 하나는 아이들과 스위치 누르기 게임을 만든 날이다. 30초 동안 스위치를 가장 많이 누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작품을 완성하자마자 아이들 사이에서 즉석 토너먼트가 열렸다. 마치 올림픽 경기를 보는 듯한 열기에 단원들도 숨죽여 경기를 지켜봤다.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동화돼 출전 선수들의 팔을 주무르며 응원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경험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보람으로 남는다.

앞으로의 목표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모아 연말에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의 원리를 설명하는 자리는 그 자체로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방학 기간에는 로봇 캠프를 마련해 아이들이 로봇 체험과 전시를 구경하고, 강연과 토론에 참여하며 로봇에 몰입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

# “디지털 공간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 초록우산×더버터 공동기획 온라인 세이프티 프로젝트 ①

열다섯 살 준우(이하 가명)는 한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다. 같은 반 친구가 쉽게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시작한 온라인 도박이었다. 평소 부족했던 용돈을 조금 채우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간단한 게임으로 돈을 벌다 보니 재미가 들었다. 처음엔 운이 좋았지만 점점 돈을 잃으면서 약이 올랐다. 모아둔 용돈 100만원을 잃고 말았다. 지금은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충동을 참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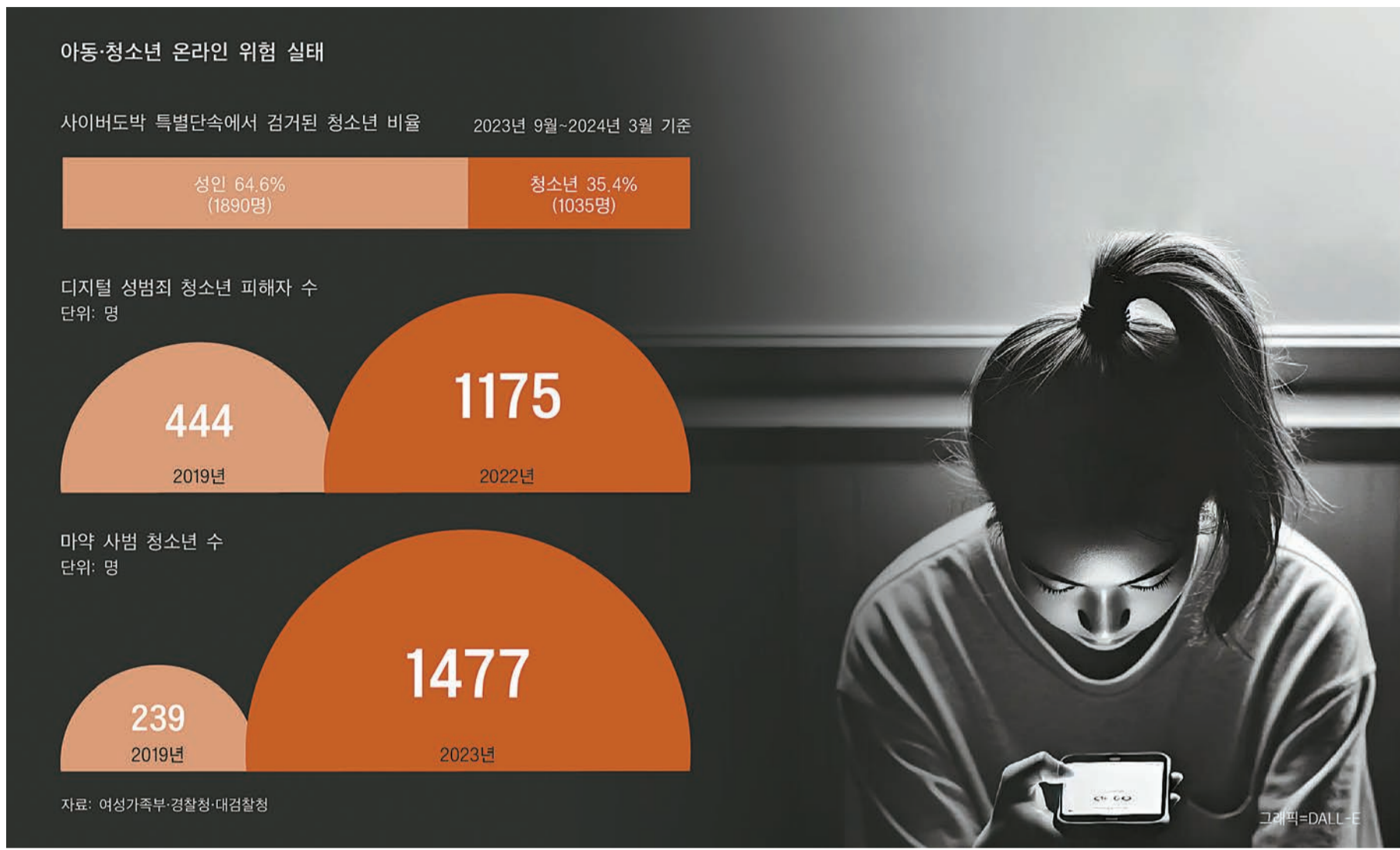
중학생인 수아는 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친근하게 답장을 하고서 몇 개의 메시지가 더 오갔다. 시간이 지나자 상대는 ‘얼굴을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다. 용돈을 주겠다고 점점 수위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고민 끝에 사진을 보냈고, 이내 후회했지만 상황을 돌이킬 순 없었다. 상대는 사진을 유폐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더 무리한 요구를 했다.

두 사례 모두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초록우산에 접수된 아동 피해 사건이다. 김재홍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옹호사업팀 과장은 “최근 성범죄·도박·마약 등 온라인에서 아동들이 피해를 본 사례 급증했다”고 말했다.

10대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8시간. 평균 수면시간(7.2시간)보다 길다. 아이들의 일상은 온라인과 연동돼 돌아간다. 디지털 공간에서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고,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 이런 온라인 공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없다. 낯선 사람이 접근해 아동에게 말을 걸고, 도박과 마약을 권하는 일마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방

“어디 살아?” “속옷은 무슨 색이야?” 지난 5일 기자가 ‘같이 수다 떨 사람?(09년생 여자)’라는 제목으로 오픈채팅방(공



개대화방)을 개설하고 받은 메시지다. 10분 만에 15명이 대화를 걸었다. 상대방 연령은 최고 38세까지 다양했다.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범죄의 영역으로 쉽게 넘어간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하기 기능을 갖추지 않은 오픈채팅 플랫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돼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은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이 의무화됐다. 다만 일대일 채팅방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주로 일대일 채팅을 통해 일어난다는 점이다. 보통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친밀감이 형성되면 일반 채팅방으로 공간을 옮기기 때문이다. 2022년 여성가족

부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의 33.7%가 온라인 채팅에서 시작됐다.

중학생 하영이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부모님과 싸우고 화가 났을 때 친구를 소개된 사람이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재홍 과장은 “가족과 싸우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채팅에 접속해서 감정을 토로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때 누군가가 잘 들어주면 쉽게 마음을 열어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방임된 아이들의 이야기인 줄 알지만, 평범한 아이들도 온라인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 온라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925명 중 1035명(35.4%)이 청소년이었다. 가장 어린 검거자는 9세였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문턱은 매우 낮다. 청소년들이 무료로 영화, 드라마,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 자주 찾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배너광고가 도배돼 있다. 휴대전화에는 수시로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문자가 온다. 터치 한 번이면 접속할 수 있다. 가입 시 요구하는 성인 인증 절차도 허술하다. 통장 계좌번호를 사이트에 등록해 돈을 베틀하기도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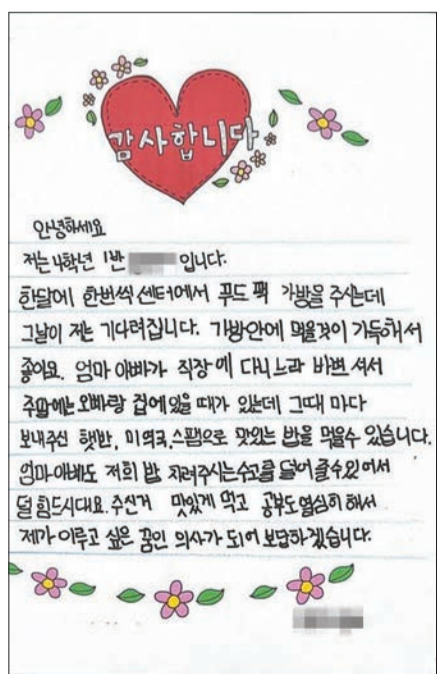
어른들이 손 쓰지 못하는 사이 도박을 접하는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 2022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중 도박 경험이 있는 비율은 38.8%였다. 도박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평균 11.3세로, 2020년(12.5세)보다 낮아졌다. 김승

현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장은 “오프라인에서 낯선 사람이 아이를 붙잡고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도박을 유도하면 엄청난 논란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에서는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은 아동의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 캠페인을 진행한다.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승현 본부장은 “우리 사회는 N번방·답페이크 사건처럼 문제가 터지면 땀질식으로 법안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전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 결식 위험 줄었지만... 연 30만 명, 푸드뱅크서 희망 찾는다



‘호프 푸드팩’을 받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보낸 감사편지. [사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는 올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 2000명에게 ‘호프 푸드팩(Hope Food Pack)’을 전달했다. 푸드팩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료품들을 담았다. 국 파우치와 헛반, 스파 등 CJ제일제당과 협력업체 미정당이 지원했다. 월 1회 제공되는 이 꾸러미 덕분에 결식우려아동들은 급식 지원이 없는 주말이나 방학에도 식사를 챙길 수 있었다.

푸드팩을 지원받은 솔로문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한부모가정이나 주말에도 일하는 맞벌이가정의 경우 아이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을 때가 많다”며 “푸드팩을 받고 나서는 집에서 영양 있는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있어 보호자와 아이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푸드뱅크(Food bank)’는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유통기한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는 식품을 기부받아 결식우려아동, 저소득층, 1인 노인 가구 등에 무료로 전달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모델이다. 한국에 푸드뱅크 시스템이 도입된 지는 올해로 27년째다. 지금은 도입 당시보다 결식 위험군이 줄었지만, 여전히 푸드뱅크는 저소득층 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푸드뱅크를 통해 매년 전국 30만 명에게 식료품이 전달된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푸드뱅크는 저소득층 현물지원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민관 협력 시스템이 잘 갖춰진 사회공헌 모델로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푸드뱅크의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1967년 미국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시작한 모델이 캐나다·프랑스 등 전 세계로 퍼졌다. 우리나라는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홈리스,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NGO를 주축으로 식품을 배분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이 물품을 기부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관리하는 전국 442개 푸드뱅크를 거쳐 지원 대상에게 전달된다.

지난해 푸드뱅크에는 총 2557억6300만원 상당의 물품이 기부됐다. CJ제일제당·농심·대상·LG생활건강·미정당 등 기업 1만3000여 곳이 푸드뱅크의 나눔 체계에 참여했다. 지원 품목은 식품에서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꿈드림팩’은 여러 기업이 참여해 식품과 생활용품,

문구류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그룹은 식료품을, LG생활건강은 생필품을, 전국푸드뱅크는 자체 구매한 문구류를 지원한다. 가방에 든 식료품은 총 3500cal 내외로, 아동이 3~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2021년부터 매년 2000명의 아동에게 연간 7회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 푸드뱅크는 2020년부터 태풍, 홍수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도 진행 중이다. 농심이 통조림, 햄, 라면 등을 지원한다.

전국푸드뱅크 대표인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앞으로 영양개선을 고려한 신선식품 비중 확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순환형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 수도꼭지 하나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

## 월드비전 캠페인

### 피니시 더 잡: 잠비아

재능기부 연주자들로 구성된 소울챔버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김인경 단장은 아프리카 식수사업에 지난 15년간 기부해 왔다. 매년 연주회를 열어 티켓 판매금으로 5억원 가까이 기부금을 모았다. 기부금은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우물을 파고 펌프를 설치하는 데 사용됐다. 다음달 12일에도 잠비아 지원을 위한 후원 음악회를 예술의전당에서 연다.

꾸준히 해오던 일이지만 이따금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 하는 물음이 따라왔다. 주변에서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 일이나"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고민이 깊어지곤 했다.

김인경 단장의 바람을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월드비전이 추진한다. 잠비아의 모든 사업장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5년 안에 완전히 끝낸다는 게 목표다. 캠페인 이름도 '피니시 더 잡(Finish the Job)'으로, '완전히 끝낸다'는 뜻이다.

### 큰돈으로 큰 문제를 해결한다

잠비아 전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면 600억원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7억 3000만 명이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 평균 6시간을 보낸다. 깨끗한 물도 아닌 생존에 필요한 물을 구하는 데 쓰는 시간이다. 잠비아에서는 3명 중 1명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없다. 인구 2100만 명 가운데 700만 명에 달하는 규모다.

식수시설은 30개 지역, 125개 와드(wards·우리나라 행정단위로 군에 해당)에 집중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사는 주민은 80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이유는 잠비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식수시설의 변화도 영향이 크다. 수년 전만 해도 손으로 펌프를 움직여 물을 끌어올리는 핸드펌프를 주로 설치했다. 흔히 '우물을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식수사업에는 대부분 핸드펌프가 쓰



아프리카 잠비아의 한 마을에서 수원지 굴착 작업에 성공하자 아이들이 기뻐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잠비아 하마운두 지역의 아홉살 소녀 비엔티가 식수대에서 물을 컵에 담고 있다. [사진 월드비전]



였다. 비교적 얇게 굴착해 적은 비용으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월드비전에서는 핸드 펌프 설치를 지양하고 있다. 고장이 잦고, 수원지가 깊지 않아 가축 분뇨가 스며들어 오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100m 이상 깊게 굴착해 태양열 펌프로 퍼 올린 물을 물탱크에 저장한다. 물탱크에는 수도관 10여 개를 연결해 학교나 보건소, 가정으로 식수를 보내고 수도꼭지 형태의 식수대를 만든다. 마을에 미니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셈이다. 월드비전에 따르면, 수도꼭지 식수대 설치에만 평균 1500만원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속가능한 식수 공급이 가능하다.

물탱크 용량은 1만 리터. 가구 수가 많은 마을에는 물탱크 2~4대를 놓기도 한다. 이경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장은 "한 마을에 식수시설 설치 비용을 보통 1500만~1800만원으로 추산하는데, 환율이 크게 뛰었을 때는 2000만원을 넘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물가나 환율은 오름세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아질 때까지 공사를 늦추거나 기다릴 순 없다"고 말했다.

### 수도꼭지가 불러온 마을의 변화

잠비아 볼란다초등학교에는 10m 높이 철재 탑 위에 물탱크가 놓여있다. 마을 어디에서도 시야를 돌리면 볼 수 있는 마을의 식수원이다. 수도관은 걸어서 10분 거리의 마을까지 이어진다. 물탱크 하나로 5개 마을에 물을 공급하기도 한다.

식수시설이 설치된 2022년 이후 마을 분위기는 달라졌다. 아이들이 물을 구하느라 보내던 시간에 학교에 나와 공부한다. 초등학교 중퇴율이 44.5%에 이르는 잠비아 사정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크리스토퍼 마두베코 볼란다초등학교 교장은 "물 공급 이후 출석률이 2배로 늘었고, 학생들의 성적도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게 된 건이다.

깨끗한 물은 농작물을 키우는 농업 용수로도 활용된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길어지면서 포기했던 주민들은 다시 농사일을 시작했다. 잠비아 남부 하마운두 지역의 낙농마을에는 젖소와 염소가 먹을 물을 구하게 됐다. 카리스토와 제시 부부는 염소 5마리로 시작한 목축업

을 400마리 규모로 키워냈다. 생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부의 네 자녀 모두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있다. 식수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 그전에 수원지를 찾고 굴착하는 작업에만 최대 6개월이 걸린다. 막상 땅을 파 내려갔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후 수질 검사를 통해 WHO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어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마다 설비를 관리할 주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 마쳐야 작업이 완료된다.

### 르완다 성공 노하우를 잠비아에

이번 잠비아 프로젝트에는 미국월드비전이 함께 지원한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르완다에서 물 공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을 잠비아에 나누기로 했다. 당시 사업으로 르완다에 118만 명의 지역주민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게 됐다. 지금은 르완다 정부의 협조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으로 식수시설이 있는 마을 단위로 추적 관리하고 있다.

그렉울긋 미국월드비전 식수분야 총괄부장은 "프로젝트 이전에 르완다에서 5년간 34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해왔는데, '피니시 더 잡'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기간 3배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르완다에서 얻은 성공의 경험을 다른 국가에 적용해 나가면 물 공급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1년 시작한 잠비아 프로젝트는 현재 2단계에 와있다. 사업 첫 2년간 대상 지역인 125개 와드 중 33개 와드에 식수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까지 누적 80곳(약 64%)에 식수 공급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아프리카 지역사회의 경제·교육·보건 등 모든 문제의 해결은 깨끗한 물에서 출발한다"며 "그동안 도전하지 않았던 규모의 '피니시 더 잡 캠페인'을 위해 글로벌 노하우와 기술, 현지 정부와 파트너십까지 준비한 만큼 반드시 성공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 비영리 캠페인에 경영 노하우를 녹이다



신동엽 연세대 교수. 김용재 더버터 기자

### 신동엽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인터뷰

지난달 25일 만난 신동엽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월드비전 '피니시 더 잡(Finish the Job)' 캠페인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조직이론 전문가다. 위원회에 참가한 50여 명의 전문위원과 함께 캠페인 성공을 위한 경영학 관점의 자문을 맡았다.

-캠페인 위원회 구성이 독특하다.  
"위원회는 전·현직 경영 전문가나 법률가, 학계 연구자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인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경영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펀드레이징이나 자원봉사 전문가들은 월드비전 내부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경영·기획·관리 전문가들로 꾸렸다. 비영리사업을 좀 더 체계화하고

고도화하는 역할이다."

-비영리 캠페인에 경영 전문가들 자문이 필요한가.  
"비영리단체가 잘못되면 사회에 필요한 큰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 비영리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감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히려 영리 기업보다 비영리에 경영적 사고가 필요하다."

-'경영적 사고'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전역에 광범위하게 지원하느냐, 아니면 한 국가에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를 놓고 선택할 때 경영적 사고가 필요하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집중하는 게 합리적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놓고 자유 토론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기업 경영의 노하우를 비영리 분야에 적용해 어

떤 식으로 개선하고 혁신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영리와 비영리의 관점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다르지 않다. 목적 함수만 다를 뿐이다. 영리의 목적 함수가 '이윤 창출'이라면, 비영리 부문은 그 자리에 '가치 창출'을 넣으면 된다. 목적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업 경영에 쓰이는 논리나 시스템의 80~90%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효율성을 높이는 건가.  
"그건 아니다. 위원회에서 '이윤 추구의 효율성은 절대 금기'라고 강조하는 게 제 역할이자 비영리 경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이나 정부도 경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월드비전이 5년 안에 아프리카 잠비아

의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마을에 물이 공급되면 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허비하는 시간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소득이 생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 나라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건 새로운 접근인 동시에 경영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본다."  
-위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번 캠페인 위원회 활동으로 비영리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 방향과 사회적가치 창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 기후기술이 인류를 구원할까... 카카오임팩트가 전문가들을 모았다

##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 서밋

혁신적인 기술이 항상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될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전문가들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혁신 기술이 등장했을 때 혁신성의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상하수도 기술로 얻은 수도물(running water)이다. 영국의학저널(BMJ)이 2007년 전문가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인간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기술로 '상하수도 기술'이 뽑혔다. 백신이나 항생제 등의 의학기술이 아닌 상하수도 기술이 인간의 수명을 30년 연장하는 데 가장 기여했다는 결과였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다. 현시대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꼽히는 기후기술(Climate Tech)과 인공지능(AI)은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긍정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매년 한자리에 모인다.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 서밋'(이하 기후서밋)은 카카오임팩트와 소퐁벤처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연례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시작해서 올해로 3회째다. 지난달 26~28일 제주에서 열린 행사에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가와 투자자, 싱크탱크 전문가, 그리고 학계와 법조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후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서 얻은 정보와 글로벌 동향, AI 시대의 에너지전환, 협력 사례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 "왜 모았을까, 왜 모였을까"

지난 3년간 네트워크는 빠르게 확장했다. 누적 참가자 수는 2357명. 참여 기관은 스타트업 107개사를 포함해 총 779 곳에 이른다. 육심나 카카오임팩트 사무총장은 "지구와 기후를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는 '동반자'를 모으려면 다양한



1 기후서밋에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왼쪽부터 한상엽 소퐁벤처스 대표, 육심나 카카오임팩트 사무총장, 정수종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교수, 류준우 그리드위즈 대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박형건 캡처6 부사장. 2 지난달 26~28일 제주에서 열린 '2024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 서밋'에 모인 참가자들. [사진 카카오임팩트]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기후와 AI라는 어려운 주제를 두고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기후서밋의 강점은 참가자들의 다양성이다. 기후 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자, 빅테크 기업 담당자 등 면면이 화려하다. 올해 기후서밋에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기후기술 전문 VC 브레이크스루에너지(Breakthrough Energy)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Temasek)을 포함해 구글(Google)·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 임원들이 참여했다. 전공을 넘나드는 대학 교수진과 법조인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부터 기후서밋에 참여한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는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위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활동 중이다. 그는 "유네스코에서도 기후변화와 AI의 연결점에 대해 오래전부터 주목해 왔다"고 말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17년 '기후변화 윤리원칙 선언'을 내놓으면서 기후대응은 기술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2021년 '인공지능 윤리 권고'에서 AI가 기후위기 대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교수는 "기술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건 기술을 대하는 사람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않습니다. 1920년대 세탁기가 보급되면서 가사노동 시간은 오히려 늘었어요. 빨래를 더 자주 하게 됐거든요. 기후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효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술을 대하는 사람을 예측해야 합니다."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

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각 현상은 AI가 자료를 짜깁기해서 그럴듯한 거짓말 답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후 AI 기술, 이를 테면 전력망을 다루는 AI에서도 환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환각 현상은 버그(bug)가 아니라 LLM의 기술적 특징(feature)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해결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서밋에는 기후솔루션·넥스트·녹색전환연구소 등 비영리 싱크탱크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한다. 넥스트의 최근 대외협력팀장은 "넷제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조직들의 요구를 공공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며 "그보다 앞서 기업들을 발굴해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면 우리끼리 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한데, 이러한 모임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해관계를 넘어 고민을 나누다

올해 6월 전력수요관리(DR) 업체 최초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그리드위즈의 류준우 사장은 에너지 산업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는 "에너지 분야는 아직 AI 기술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원전 3~4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전력 수요를 소프트웨어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칫 AI가 잘못된 답을 갖고 움직인다면 굉장한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화두는 '스코프 3(Scope3)'다. 스코프3는 직접 탄소배출량(스코프1)과 전력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스코프2)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걸친 탄소배출 총량을 뜻한다. 신용녀 한국MS 상무는 "국가 계획과 유사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2025년까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지난해 기준 스코프3 배출량이 전년 대비 30.9% 증가했다"며 "스코프3 증가로 에너지 최적화와 같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이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구글의 고민도 비슷했다. 스펜서 로우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탄소배출량을 최대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AI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상엽 소퐁벤처스 대표는 "매년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를 단순히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동반자 내지는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 것 같다"며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 수의사, 개발자, 그리고 사회혁신가

### ▶ 1면 '포인핸드'에서 계속

이환희 대표는 2022년 '브라이언 펠로우'에 선정됐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설립한 공익재단 브라이언임팩트가 운영하는 사회혁신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혁신가를 선정해 매월 300만원의 제약 없는 활동비를 최대 4년간 지급한다. 사회문제를 더 잘 해결하도록 네트워크와 인프라도 지원해준다.

브라이언 펠로우 송년행사에 참석한 이환희 대표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고 몹시 당황했다. 대학생 때 코딩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따라했던 게 카카오톡 플랫폼이었다. 이런 걸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다. 김범수 창업자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몇 시간 동안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포인핸드를 만들면서 느꼈던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T기술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회혁신가 대부분이 기술을 잘 모른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어요. 혁신가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

도 좋지만 '기술'을 지원해 주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서로 크게 공감했어요. 개발자로서 뜻깊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 대화 내용이 얼마 뒤 카카오임팩트의 실제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개발자와 사회혁신가를 연결해주는 '테크포임팩트' 사업이죠."

### 혁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보호소를 통해 구조된다. 지난 1년간 입양된 유기동물 수는 2만5000여 마리. 포인핸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전보다 입양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수가 안락사 되거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자연사한다.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환희 대표는 2023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포인핸드 입양문화센터'를 열었다. 지난 9월 26일 찾아가면 센터에서 '살랑이'를 만났다. 꼬리를 수직으로 흔들어서 살랑이. 사람을 좋아하는 살가운 성격의 믹스견이 입양을 기

다리고 있었다. 살랑이는 서너 달 전 길거리에서 태어났다. 최근에는 버려진 개보다 살랑이처럼 길에서 태어나 방치됐다가 구조되는 개가 훨씬 많다.

유기동물보호소는 대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보호소를 짓고 싶어도 혐오시설 이미지 때문에 주민 반대에 부딪힌다.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 보호소 동물들에 대한 오해는 더 커진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센터를 마련한 이유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다. 유기동물은 성격이 어둡다, 품종 있는 동물이 더 좋다는 선입견을 깨고 싶었다. 이환희 대표가 살랑이를 들어 올려 품에 안았다. "어때요? 믹스견이라도 너무 예쁘지요?"

입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양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유기동물을 입양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20%가 안 된다는 게 이환희 대표의 설명이다.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유기하거나 잃어버린다. "사진부터 바꾸십시오. 구조 당시의

피죄죄한 모습, 케이지에 갇힌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아무도 입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이환희 대표는 지역의 보호소들을 방문해 입양을 홍보하고 상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강릉시 보호소의 경우 입양률이 2배로 늘었다. 입양 상담 전에 미리 '신청서'를 받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즉흥적인 입양으로 인한 파양을 막기 위해서다. 강릉·군산·제주·남양주·사천·상주 등 전국 곳곳을 실재 없이 돌아다닌다.

"힘들지 않냐고요? 저는 이 일이 너무 흥미롭고 보람 있습니다. 즐겁지 않았다면 10년 넘게 지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혁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동물을 살리고자 했던 수의사의 신념, 개발자로서의 분투. 그의 곁에 시간이 쌓이고 있다. 살랑이가 이환희 대표의 얼굴을 핥는다. 개의 체온은 사람보다 1도 높다. 살아있는 동물만이 그 체온을 가질 수 있다.



이환희 포인핸드 대표

# 사회혁신 연구 중인 OECD, 한국에 주목하다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시아 '열공' 중이다. 가입한 38개국 가운데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곳에 불과하지만, 사회혁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장희수 OECD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부 연구원은 지난 2022년 OECD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 채택 이후 국제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OECD 가입 절차를 밟으면서 기존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분야에서 아시아가 결코 유럽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또 활발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은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OECD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구분하나.

"사회적경제 속에서 조직 형태는 다양하다. 협동조합·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기업·소셜벤처·임팩트스타트업. 이 모든 조직의 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본다. 이들을 아우르는 특정 단어를 찾기보다 이들 조직이 갖는 공통적인 성질이 중요하다. 사회적·환경적 목적을 우선시하고, 연대의 가치에 공감하고, 자본보다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조직이라



장희수 OECD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부 연구원

장희수 OECD 연구원은 "최근 유럽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재 더버터 기자

는 점. 또 민주적 절차와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공통점이다. 사회혁신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권고 사항 중 하나다. 사회혁신의 정의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협업에 기반을 둔 새로운 솔루션이라는 점이다."

-OECD의 정의로는 사회적경제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한국은 딱 잘라 정의하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유연하게 쓰는 분위기다. 사회적기업·소셜벤처·협동조합·임팩트스타트업이든 조직 형태만 다르지 결국에는 사회적 요구

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 아니냐는 거다."

-요즘 글로벌 트렌드는 뭐라고 보나.

"유럽 안에서 사회혁신이 주류화하는 무브먼트인 건 확실하고, 이제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이나 비영리조직에만 사회혁신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부·대기업·중소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혁신을 내재화하고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사례가 있나.

"덴마크에 '직업교육 프로젝트(Vocational Training Project)'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의견을 직업교육에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됐다. 기존에는 왕래가 잦았던 민간기업과 직업교육을 관할하는 고등학교·대학교 산하의 직업교육기관 등을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변화할 수 있게 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고용률과 경제 기여가 더 높아지는 걸 사회혁신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는 없다. 사회혁신에 조직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앞서 말한 사례의 핵심은 협업 기반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됐다. 기존에는 왕래가 잦았던 민간기업과 직업교육을 관할하는 고등학교·대학교 산하의 직업교육기관 등을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변화할 수 있게 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고용률과 경제 기여가 더 높아지는 걸 사회혁신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는 없다. 사회혁신에 조직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앞서 말한 사례의 핵심은 협업 기반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누구나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

"구분이 없어지는 추세다. 다만 최근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유럽에서 사회문제 해결 주제로 전통적인 협동조합이 다시 강세다."

-이유가 있나.

"고령화 이슈가 한국에서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고령화 상위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밖에 기후변화나 복지시스템에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출신 배경이 같은 집단이 모여 형성한 협동조합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이슈를 다루는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협동조합도 각광받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협동조합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OECD에서는 한국 사례를 많이 소개하는 편이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임팩트가 크고, 트렌드와 부합한다고 여긴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로 이탈리아·캐나다·스페인, 그리고 한국이 꼭 들어간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은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협동조합의 임팩트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까운 지점이다. 이제는 임팩트에 초점을 맞추고 발전시켜야 한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 재난훈련도 고령자 중심으로 진짜 위기를 대비하다

재난구호 전문기관 더프라미스가 제주에서 '노인친화 재난대피소 훈련'을 지난달 27일 진행했다.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고령자 중심의 무각본 재난훈련이다. 훈련에 참여한 이재민은 총 157명. 65세 이상 고령자는 98명,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 6명이었다. 고령자들이 운영요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력을 높이는 게 이번 훈련의 목표다.

현장에 마련된 재난대피소는 노인친화형 구호서비스로 채워졌다. 이동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부터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발·미용, 종교활동, 아동쉼터, 동물쉼터 등 다양했다.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의 이재민들도 대규모 재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구호팀이 도착하기까지 최대 48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번 훈련의 또 다른 특징은 돌발상황을 곳곳에 심어줬다는 점이다. 재난

훈련 중에 이재민 역할을 하던 주민 한 명이 바닥에 쓰러졌고, "심정지 환자 발생"이라는 안내가 나왔다. 사전에 환자 역할만 정했을 뿐 응급 대처 역할은 정하지 않은 상황. 운영요원이 잠깐 당황하더니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이재민들도 손을 보태 환자를 이불 위로 옮기고, 이불 끝을 잡아 쥐어 체육관 앞에 대기하던 구급차로 짐작하게 이동했다.

이날 환자 역할을 한 김인자씨는 "제주에는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적이 거의 없어서 재난훈련도 처음 해 본다"며 "이번에 몸으로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닥쳐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훈련에서 쓰인 자원은 대부분 제주 지역에서 조달했다. 참여기관 55곳 가운데 45곳(약 82%)이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였다.

김동훈 상임이사는 "재난 훈련의 실행만큼이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 특화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지난달 27일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노인친화 재난대피소 훈련' 현장.

### 소셜섹터 NOW

#### 기아대책 '2024 호프컵' 개막

서울 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8~12일 5일간 '호프컵' 축구대회가 열린다. 기아대책이 2016년부터 2년마다 전 세계 결연 아동을 초청해 개최하는 행사다. 과테말라·잠비아·베트남 등 10개국 남녀 선수 120명이 참석한다.

####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 개최

아산나눔재단이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프로그램 수료팀들이 무대에 올라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11월 5일 마련한다.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본관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는 미국 비영리스타트업 동향을 살펴보는 패널토크도 진행된다.

#### SM엔터 'SMF 10주년' 성과공유회

SM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스마일 뮤직 페스티벌(SMile Music Festival)'의 10주년 성과공유회가 30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열린다. 지난 10년 동안 뮤지션 꿈을 가진 청소년을 지원한 경험을 나눈다.

### 황신애의 기부상담소

## 기부금 100% 전달, 정말 좋은 기부일까?



황신애 한국모금협회 상임이사

**Q** 내 기부금이 운영비나 인건비로 쓰이는 게 싫어요. 기부금 100%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곳에 기부하고 싶어요.

**A** 기부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긴하게 잘 쓰이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당연하죠. 그런데 잠깐! 기부금을 잘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잘 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NGO의 운영비나 인건비의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영비와 인건비는 기부금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단체의 운영과 인력의 안정성이 있어야 사업 역량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임팩트 있는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요. 운영비와 인건비가 넉넉해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기부금을 간간하게 관리해서 새는 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아지죠. 이 비용들이 생각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기부금이 허비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비나 인건비 비율은 단체의 규모나 사업 내용, 사업 방식, 사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와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우를 보아도 최소 15% 이상 최대 50%까지도 사용되곤 합니다. 기부금을 100% 직접 사업에 쓰는 경우는 기관 자산이 충분해서 주식·부동산 등의 운용소득으로 운영 및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와,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배분·대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사업에 다 사용한다고 해도 전달구간이 길다면 비용이 적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발품을 팔면서 일하는 곳들은 대체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늘 부족합니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기부금 전액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복잡 미묘하

기도 합니다. 취약계층의 삶이 곤란한 이유는 단지 돈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매달 제공되는 얼마의 돈으로 삶의 여건을 나아지게 하기 어렵습니다. NGO들은 아주 오랫동안 전쟁·기근·결핍·굶주림 등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직접 기부금을 제공하기 보다는 그들의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양질의 교육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변화 모델로 만들고 현장을 발로 뛰며 다양한 조정과 협력으로 일합니다. 또 나름의 사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 일에 기부자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으로 기부 요청을 하는데 이 모든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회계장부에는 운영비 또는 인건비로 기록되곤 합니다.

100%를 사업에 쓰는 곳에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기부금이 더 잘 쓰이기를 바란다면 단순히 비율로 선택하기보다는 단체의 일하는 방식을 질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 2040 고액기부자들에게 ‘가이드’가 필요하다

## ▶ 1면 ‘필란트로피’에서 계속

황신에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기부자가 특정 단체에 기부를 늘리는 건 ‘아하 모멘트’라고 하는 깨달음의 구간을 지났기 때문인데, 그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르다”면서 “기부자가 혼자서 깨달음을 얻기 어렵고 단체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 ② 기부의 가치를 잘 설명해 주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기존에 고액기부를 이끌었던 60~70대 기부자들은 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부를 물려받았던 자수성가했던 한평생 돈을 모으고 지키는데 힘써본 사람들이라 돈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이 나름 뚜렷하게 형성돼 있다.

2040세대는 엄청난 기부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돈에 대한 경험은 앞선 세대에 비해 부족하다. 각자의 계기나 동기로 기부를 시작했지만 그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실제로 FGI 참가자들이 자신의 기부에 대해 해석하는 능력은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기부의 가치와 기부가 만들어낸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1억원 가까운 돈을 기부하고도 그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황신에 이사는 “기부자들이 큰돈을 내놓고도 자신의 기부가 갖는 의미를 모른다는 건 무척 불행한 일”이라며 “그래서 ‘가이드(안내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좋은 기부 경험을 쌓아갈 수 있게 옆에서 해설해 주고 방향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단체나 모금가(펀드레이저)가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 ③ 질문이 많은 세대, 대답을 못하면 기부자는 떠난다.

젊은 고액기부자들은 종종 신중하고 간간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단체가 보내 주는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회계도 전부 들여다본다. 60~70대 기부자들에 비해 질문도 많이 하는 편이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 하면 갑자기 불안해지죠. 과연 내 돈이 잘 쓰이고 있을까. 그런 일이 반복될 때 기부를 끊었던 것 같아요.”

“한 단체에서 고액기부자 클럽을 만들었다며 연락이 왔는데 좀 이상했어



2040세대 고액기부자 FGI 참여자

1 강규석   1994년생   사업가 (기아대책 추천)	4 김기혁   1982년생   사업가 (기아대책 추천)
2 김혜연   1980년생   사업가 (초록우산 추천)	5 민병수   1986년생   사업가 (기아대책 추천)
3 박보연   1989년생   사업가 (서울사랑의열매 추천)	6 박윤수   1993년생   연구원 (굿네이버스 추천)
7 여홍구   1993년생   직장인 (세이브더칠드런 추천)	*이름 가나다순

요. 다른 단체의 기부자클럽을 벤치마킹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내용이 엉성했어요. 역량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멀리하게 됐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제 예산으로 최대의 사회적 효용을 만들어내고 싶었거든

요. 그 제안을 받아준 곳에 고액기부를 했어요.”

2040 고액기부자들은 단체와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요구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단체가 소액후원에 쓰던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고

액기부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팬시한 프로그램, 마케팅적인 접근으로는 2040 고액기부자들에게 인정받기 어렵다.

### ④ 일-육아-기부를 병행하며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한다.

앞선 세대 고액기부자들은 은퇴 후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뒤에 사회 환원의 의미로 고액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2040 고액기부자들은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에 기부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육아-기부’를 병행하게 되는 셈이다.

“20대 중반, 사업으로 충분한 돈을 벌고 나니 약간의 슬럼프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낸 기부금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열심히 벌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셀프 동기 부여’ 차원에서 기부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한 단체는 ‘젊은 고액기부자 클럽’을 조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0대 전후 기부자들이 모여 사업 고민도 나누고 기부에 대한 생각도 공유하는 모임이다. 자녀들 나이도 비슷해서 다 같이 해외로 ‘월드 트립’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래들만 모이는 거라서 훨씬 편하고 좋아요. 부모님 세대와 어울리는 모임은 아무래도 조금 어렵잖아요. 단체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멤버들끼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공동 기부를 하기도 해요.”

### ⑤ 고액기부자에 대한 ‘모델링’이 다음 세대의 기부를 좌우한다.

FGI에 참여한 기부자들은 앞선 기부자들을 ‘롤모델’ 삼아 고액기부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액기부를 실천한 국내 IT 벤처 창업자들, 해외 기업인들을 자신들의 롤모델로 꼽았다.

“현승원 디체어 의장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돈을 벌고 쓰는 것에 대한 그분의 철학을 듣고 기부를 결심했죠.”

“먼저 고액기부를 실천한 아버지를 따라 기부했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학생 때는 돈이 없어서 못 했지만,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당연히 기부해야죠.”

전문가들은 2040 고액기부자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다음 세대의 롤모델이 되어 더 많은 기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황신에 이사는 “멋있는 누군가를 보고 패턴을 모방하고 싶게 만드는 게 모델링인데, 고액기부의 강력한 유인력이 될 수 있다”면서 “젊은 고액기부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시각장애인도 여행할 수 있다

### GKL 청각여행 프로젝트



사운드 투어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전용 장비로 소리를 채집하고 있다. [사진 GKL사회공헌재단]

지난해 우리 국민은 평균 6.5번 여행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 코로나가 심했던 2020년에도 전 국민의 86.4%가 ‘근교로라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의 상황은 다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장애인 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최근 1년 동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장애 유형마다 어려움은 다르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여행은 큰 결심이 필요한 도전이다. 시야가 좁아 천천히 이동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일행을 놓치기 일쑤다. 속도를 맞춰 걸어주는 일행이 있어도 여행 내내 늦다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당사자들은 말한다. 그

렇다고 홀로 여행을 가면 다칠 위험이 높고, 눈앞의 풍경을 묘사해 줄 사람이 없어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없다고 한다.

최근 GKL사회공헌재단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GKL 청각여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자체를 지원해 지역 특성을 살린 청각여행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힐링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첫 사업은 전남 담양군에서 진행된다. 소리 전문가와 여행 콘텐츠 개발 업체,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협력해 담양군 명소인 죽녹원, 한재골 근린공원 코스를 만들었다. 각 코스는 시각장애인의 호흡에 맞춰 약 2시간 동안 천천히 진행된다.

여행객들에게는 녹음기-헤드셋-마이크 등 자연의 미세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전용 장비가 제공된다. 죽녹원에서는 바람이 불 때 대나무끼리 부딪치는 소리, 대나무를 쓰다듬거나 두들길 때 나는 소리를 온전히 집중해 들을 수 있다. 대나무 나이에 따라 두들기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계절마다 어떤 소리에 집중하면 좋은지 등 전문적인 해설도 제공한다. 식생이 다양한 한재골근린공원에서는 계곡물 소리를 듣고 열매들을 만져보는 시간을 갖는다.

담양 청각여행 프로젝트 정식 운영은 내년 초부터다. GKL사회공헌재단은 그 전에 시각장애인 당사자 등 관계자들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사운드 투어 가이드 교육도 한다. 지자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코스 내 인프라 보강에 나선다. 정상 운영을 시작하면 재단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권한을 담양군에 이양할 예정이다. 정진섭 GKL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올해 사업을 시작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사운드 워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광을 중심으로 공익을 실현한다는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데버터 기자



# 경계에서 선하고 끈질기게

혁신을 만나다 **임성택 두루 이사장**

지난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임성택 두루 이사장을 만났다. 절반은 로펌변호사로, 절반은 공익변호사로 경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김용재 더버터 기자

집이 있다. 초등학교 때 놀러 갔던 친구네 집. 잔디가 있는 넓은 마당과 커다란 피아노. 경외심이 들 정도로 웅장하고 평화로웠던 풍경이 떠오른다. 집이 하나 더 있다. 우리 집 갈래? 중학교 때 친구가 말했다. 좋아! 친구 따라서 달동네를 올랐다. 방 하나 딸린 작은 집에 친구네 여덟 식구가 살고 있었다.

임성택 두루 이사장(지평 대표변호사)의 오래된 기억이다. 두 집이 대비를 이루며 여전히 뇌리에 박혀 있다고 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삶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생에 영향을 미친 최초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죠.”

뇌리에 박힌 그 기억이 어떤 작용을 한 게 틀림없다. 임성택 이사장은 법조계에서도 ‘연구 대상’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명함을 내밀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남들 다 보는 사법시험은 안 보고 NGO에서 일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다가 ‘인천지역주민회’라는 빈민운동 단체에서 사무국장까지 지냈다.

법무법인 지평의 창립 멤버로 대령로펌을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에 머물고 있다. 지평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조직인 ‘사단법인 두루’를 2014년 설립했고, 10년 만에 공익법단체 중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두루 10주년 기념 티셔츠를 입은 임성택 이사장을 서울 중구에 있는 지평 사무실에서 만났다.

##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에서

-두루가 벌써 10년이 됐군요.

“시간이 빠르죠. 전업 공익변호사 한 명으로 시작해 지금 열두 명이 됐어요. 공익법단체가 국내에 이십여 개가 있는데 저희 변호사 수가 가장 많아요.”

-규모를 일부러 키운 건가요.

“애초에 공익변호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두루를 설립했으니까요. 지평을 만들 때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게 ‘공익 활동을 열심히 하는 로펌이 되자’는 거였어요. 지평의 지원으로 두루가 성장했고, 두루가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지평 변호사들이 참여하면서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죠.”

-전업 공익변호사가 전국에 몇 명이나 되나요.

“100명이 조금 넘어요. 아동·난민·이주민·여성·장애인 등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활동을 무료로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들었던 숫자랑 별 차이는 없네요.

“거의 그대로예요. 전체 변호사가 3만 5000명이 넘는데 공익변호사 비율이 1%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1%면 350명인데 지금은 많이 부족하죠. 공익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로펌 대표변호사인데 활동하시는 건 거의 공익변호사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펌 변호사들이 저를 되게 특이하게 봐요. 그런데 또 공익변호사들도 저를 특이하게 보죠(웃음). 사실 저한테는 공익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고등학교 때 법대에 가야겠다고 결심했던 첫 마음과 연관돼 있어요. 시작은 늘 ‘그 집’이에요. 어릴 때 갔던 달동네 친구 집. 변호사가 돼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졸업 후에는 왜 NGO에 들어갔나요.

“대학 가서 보니 변호사가 꼭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웃음). 대학 때는 학생운동을 했고 졸업하고는 시민운동과 빈민운동을 했어요. 그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다시 사법시험을 쳤군요.

“서른 살에 사시공부를 시작했어요. 둘째가 태어난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요(웃음). 1년 반 만에 합격했는데

연수원 성적이 꽤 좋았어요. 판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로펌’을 선택했어요. 아버지가 특히 아쉬워하셨죠. 하루라도 판사로 출근하고 바로 사표 내면 안 되겠느냐고 하실 정도로 서운해하셨어요. 그때도 제 첫 마음을 따라서 정했어요. 시민운동과 빈민운동은 해봤으니 큰 로펌에 가서 경제의 흐름과 사회의 흐름을 배워두는 게 사람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죠.”

## 헤쳐 나가는 힘

그는 사법연수원에 다니면서 수어(手語)를 배웠다. 손과 표정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재미있었다. 법무법인 세종에 취직한 뒤에는 청각장애인 단체에 가서 농인을 대상으로 ‘수어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마다 갔다.

-입사 초기라 바빴을 텐데요.

“그때는 공익변호사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로펌 변호사지만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수어 법률상담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10년 가까이 하게 됐어요. 법률상담이라고 했지만 돌아켜보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은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기운을 주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을 때도 많았어요.”

-그때부터 이미 장애인 관련 공익활동을 하셨네요.

“장애 관련 활동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게 정말 많아요. 다양한 몸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와 불편함, 어려움, 위기 등을 마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들리지 않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삶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헤쳐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동력이나 에너지 같은 걸 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후배 변호사들에게 꼭 공익소송이나 공익활동을 꼭 해보라고 해요.”

-어째서요.

“변호사들은 사건을 만나면 판례부터 생각해요. 판례가 있으니 안 되겠네. 법이 이렇게 있어서 어려워. 이런 식이죠. 그런데 공익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판례가 있어? 그럼 바뀌어야. 안 되면? 헌법재판소가야지. 법이 그렇다면 법도 바뀌어야지. 법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재미있네요.

“로펌 변호사들은 법을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요. 반면에 공익변호사들은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공익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기도 해요. 입증이 무척 어렵거든요.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언론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일반적인 소송에서 언론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배우기는 어렵죠. 법을 보는 태도, 시야, 풀어나가는 기술, 이런 걸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기에 문에 일하는데 도움이 되죠.”

## 법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두루의 변호사들과 함께 많은 프로젝트를 하셨죠.

“아동, 장애, 사회적경제, 이주·난민 등의 영역에서 무료 법률 지원도 하고 다양한 입법 활동도 했어요. 10주년을 맞아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쭉 검토해 봤더니 영역은 크게 4개지만 실제로 하는 활동

은 수백 가지였어요. 개별 사건들도 정말 많이 해결했는데 정작 사회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도왔지만, 아동학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임팩트를 고민하기 시작했군요.

“그동안 두루가 법적 조력과 옹호 활동을 하는 단체였다면, 10주년을 맞아 ‘임팩트 지향’ 조직으로 가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세웠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하는 ‘모두의1층’ 프로젝트죠.”

-‘모두의1층’은 꽤 오래된 프로젝트 아닌가요?

“9년째 이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죠. 원래 두루는 법률 활동만 했어요. 장애인 등 이동약자 누구나 1층 가게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경사로 설치를 요구하는 ‘모두의1층’ 소송에서 승소했고, 경사로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시행령이 바뀌어도 경사로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법인 무의와 함께 가게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법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변하는 게 아니네요.

“법이 중요하긴 한데 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경사로가 그런 거죠. 기업의 참여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고 시장도 생겨야 해요. 경사로를 만드는 회사도 생겨야 하거든요. 그런 걸 함께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죠.”

-두루 변호사님들이 더 바빠지시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익숙한 법률 활동만 하면 됐는데 어려운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도 만나고 지자체도 만나야 하고요.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예요(웃음).”

임성택 이사장의 마음에는 달동네 집이 있다. 주류도 비주류도 아닌 경계에서서 그 집을 떠올리곤 한다. “고여 있으면 변하기 어렵습니다. 무수한 사람의 노력과 분투가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비관에 빠질 정도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바뀔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김시원 더버터 기자



사단법인 두루의 변호사들이 사무실 앞 비탈진 골목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두루]